제2 류현진 찾는 다저스…오승환·윤석민 영입 저울질 3면

양동근 장염 투혼…모비스 3연패 후 4연승 10면

스포츠동아 2013년 11월 7일 목요일 sportsdonga.com 10판

오승환 29cm > 차프만 27cm

돌직구 상하무브먼트 ML 톱클래스

ML 최고구속 소방수 차프만 무브먼트 8위 그쳐
우에하라 28.4cm 2위…강력한 생존무기 입증



<신시내티 마무리>

타자들은 "오승환의 직구는 일반적인 직구보다 떠오르는 느낌이 크다"고 말한다. 이는 PTS(투구추적시스템)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오승환의 직구 평균구속은 메이저리그(ML) 정상급 불펜과 비교할 때 다소 떨어진다. 하지만 상하무브먼트는 ML에서도 1·2위를 다투는 수준이다. '돌직구'는 해외진출 시에도 오승환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스포츠동아DB

'한국프로야구 최고의 마무리' 오승환(31)이 해외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원 소속구단 삼성 역시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그의 돌직구가 국내 최정상임에는 이견이 없다. 과연 메이저리그(ML) 불펜투수와 비교해보면 어떨까.

●세 번 살아오는 직구?

스포츠기록통계전문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2013시즌 오승환 직구의 평균 구속은 시속 150.02km였다. "공 끝이 좋다"는 평가도 빼놓을 수 없다. 올해 한국시리즈(KS) 기간 중 심창민(삼성)은 "세 번 살아서 온다"고 '돌직구'의 위력을 설명했다.

오승환의 직구를 상대하는 타자들은 "공이 떠오르는 느낌"이라고 입을 모은다. 언더핸드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면, 이론적으로 투수가 던진 공은 중력의 영향 때문에 떠오를 수 없다. 그러나 일반적인 직구보다 하강폭이 적다면, 타자는 공이 떠오르는 것 같은 착시현상을 경험한다.

●상하무브먼트의 개념은?

스포츠투아이㈜가 제공한 PTS(Pitch Tracking System·투구추적시스템)의 '상하무브먼트'라는 개념을 통해 착시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상하무브먼트는 회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공과 실제 투구가 각각 홈 플레이트를 통과할 때의 높이차다. 만약 이 값이 양수라면 그 공은 중력의 영향보다 더 적은 하강을 한 것이고, 음수라면 중력의 영향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오승환과 ML 정상급 불펜투수들의 직구 비교(2013시즌)

선수	소속	직구 평균구속	직구 상하무브먼트	비고
오승환	삼성	약 150.02km	29cm	28세이브(4위)
아롤디스 차프만	신시내티	약 158.4km	27.4cm	38세이브(NL 3위)
크레이그 킴브럴	애틀랜타	약 155.9km	18.8cm	50세이브(NL 1위)
그렉 홀랜드	캔자스시티	약 154.7km	28.4cm	47세이브(AL 2위)
우에하라 고지	보스턴	약 143.6km	28.4cm	21세이브(AL 공동 14위)

※상하무브먼트 = 회전하지 않는다고 가정한 공과 실제 투구가 각각 홈 플레이트를 통과할 때의 높이차. 이 값이 양수면 그 공은 중력의 영향보다 더 적은 하강을 한 것이고, 음수면 중력의 영향보다 더 많이 떨어진 것이다. 보통 직구는 양수 값, 커브는 음수 값을 지닌다.

●착시현상, 평균적인 직구보다 5cm ↑

2013년 페넌트레이스에서 우완투수 직구의 평균 상하무브먼트는 24cm. 오승환 직구의 평균 상하무브먼트는 무려 29cm였다. 타자 입장에선 일반적인 직구보다 5cm 가량 더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KS에서 오승환의 라이징패스트볼은 더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다. 상하무브먼트가 무려 37cm(PTS가 설치된 잠실 기준)에 달했다. KS에서 우완투수들의 평균 상하무브먼트는 28cm였다. 야구공의 평균 지름이 7.23cm이니, KS에서 오승환의 직구는 다른 우완투수들에 비해 공 한 개 이상 더 떠오르는 느낌을 준 셈이다.

●오승환, 직구 평균 구속(150.02km)은 ML 불펜 중 50위권

단순히 직구 평균 구속만 놓고 보면, 오승환은 ML 불펜투수들을 압도하지 못한다. 올 시즌 ML 불펜투수 중 직구 평균구속 1위는 아롤디스 차프만(신시내티)이다. ML통계전문사이트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무려 98.4마일(약 158.4km)을 기록했다. 직구 평균구속 상위 10걸은 모두 96마일(약 154.5km) 이상을 기록했다. 50위인 제이슨 그릴리(피츠버그·93.3마일)도 오승환(93.2마일)보다 빠른 직구를 던졌다.

●오승환, 직구 상하무브먼트(29cm)는 ML 불펜 중 최정상권

그러나 올 시즌 ML 불펜투수들의 직구 상하무브먼트 순위를 살펴보면, 오승환(29cm)도 최정상급이다. 이 부문 1위는 조시 콜멘터(애리조나)로 30.2cm(11.9인치). 2위는 우에하라 고지(보스턴)와 그렉 홀랜드(캔자스시티)로 28.4cm(11.2인치)였다.

직구 평균구속이 89.2마일(약 143.6km)에 불과한 우에하라가 상하무브먼트 순위에선 상위권인 점이 눈에 띈다. 그의 직구가 구속에 비해 위력적인 이유다. 우에하라는 뛰어난 제구력과 까다로운 스플리터까지 갖췄다. 오승환의 직구 역시 구위뿐 아니라 제구력도 수준급. 해외무대에서도 '돌직구'는 분명 경쟁력 있는 무기다.

전영희 기자 setupman@donga.com 트위터@setupman11



박은선의 성별 의혹을 제기한 WK리그 구단들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체육회는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침해와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을 밝힐 예정이다. 스포츠동아DB

박은선 인권은 뒷전 성적에 눈 먼 구단들

여자축구 감독들 성별 확인 요구 파문

여자축구선수 박은선(27·서울시청)의 성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논란의 시발점은 지난주 서울시청을 뺀 WK리그(여자축구리그) 6개 구단 감독들의 비공개 간담회였다. 감독들은 박은선의 성정체성을 확실히 해달라는 입장을 여자축구연맹에 구두 통보했다. 무기는 내년 리그 보이콧이었다. 여론이 악화되자 여자연맹은 6일 예정된 단장 간담회를 연기했다. 당초 A구단이 대표 자격으로 '박은선의 성별을 짚어야 한다'는 문건을 만들어 단장들 사인을 받아 여자연맹에 전달할 예정이었다. 이 사안이 미리 알려지지 않았다면 선수 성별 확인 요청이란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뻔 했다. 박은선이 속한 서울시체육회는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도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축구협회 차원의 책임 있는 조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성별논란 넘어 인권논란으로

7월 동아시안컵 대회가 열릴 무렵 B구단이 대한축구협회에 "왜 박은선을 대표팀에 뽑지 않느냐"는 공문을 보냈다. 이 때만 해도 조용했다. 불씨가 되살아난 건 박은선이 WK리그에서 보인 활약이었다. 180cm, 74kg으로 월등한 신체조건을 가진 박은선이 19골을 몰아치자 상대팀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감독들은 "박은선이 뛰면 선수 부상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댔지만 구차한 변명이었다. 진짜 불만은 서울시청의 선전이었다. 또 대표팀 발탁은 축구협회 기술위원회와 여자대표팀 윤덕여 감독의 고유 권한이다. WK리그 감독들이 나설 이유가 없다. 더 한심스러운 건 구단들의 비겁한 행태다. 모두 "이번 일을 주도한 적이 없다"고 발을 뺀다. 일각에선 "구단 윗선이 모르는 곳도 있다"고 하지만 리그 보이콧 같은 사안을 감독들이 독단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없다.

팬들은 "성적을 위해 소중한 가치(인권)를 짓밟아도 되느냐. 승리에 걸림돌이 되면 무차별 인신공격을 해야 하냐"고 분노했다. 축구협회의 어정쩡한 대처도 화를 키웠다. 2010년 5월 여자 아시안컵 직전 개최국 중국이 박은선의 성별을 거론했을 때 확실히 맞서야 했다. 당시 한국은 박은선을 대표팀에서 제외시켰다.

이제 박은선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 자신의 SNS 계정에 남긴 "성별 검사를 월드컵, 올림픽 때도 받아 출전하고 다 했다. 어린 나이에 수치심을 느꼈는데, 지금은 말할 수도 없다"는 글에는 비통함이 묻어나왔다.

느닷없이 불거진 성별논란, 이어진 인권논란, 이 모든 혼란을 일으킨 책임은 과연 누가 질 것인가.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트위터 @yoshike3

편집 | 박재윤 기자 parkjy@donga.com 트위터@parkjyoon

Cigna 라이나생명 라이나생명은 와국계 생명보험사로는 최초로 한국에 진출하였으며, 세계적인 금융그룹 CIGNA의 일원입니다 www.lina.co.kr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13-756호(2013.3.28)[13-A-CL-064]

3억이나 보장해주면 보험료가 너무 부담되지 않나요?

아닙니다, 라이나는 월 60,000원으로(40세 남자기준) 사망 시 3억원을 보장합니다

가입 후 1년 이내 재해 이외 원인으로 사망 시 50% 보장.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보장 제외. 5년만기 후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지켜주는 라이나 무배당 가족사랑플랜보험(갱신형)

- 교통사고! 상해! 질병!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장!
- 갱신을 통해 최장 80세까지 보장!
- 만기가 정해져 있는 정기보험이라 종신보험 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습니다

보험료 예시

가입나이	가입금액	남자	여자
35세	3억원	45,000원	30,000원
40세	3억원	60,000원	39,000원
45세	3억원	93,000원	48,000원

해지환급금 예시(기준 : 40세 남자)

경과기간	납입보험료누계	해지환급금	환급률
1년	720,000원	0원	0.0%
3년	2,160,000원	0원	0.0%
5년	3,600,000원	0원	0.0%

*기준 : 주계약 가입금액 3억원, 최초계약, 5년 만기, 전기(월)납,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 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음

*가입금액 3억원의 경우, 최대 가입나이는 50세이며 51세 이후부터는 가입금액이 이보다 적습니다

24시간 무료 상담 및 문의 지금 전화하세요
☎ 080-797-7700

*만15~60세까지가입가능하며, 갱신을통해서최장80세까지보장이가능합니다 *이 보험 상품은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형 상품입니다 *본 계약은 계약심사를 거친 후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고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현재 및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청약 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본)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을 포함)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